

『書簡文全書』(학원사 편집국, 구애의 편지, 서울, 학원사, 단기4292년 6월 1일).

• 2010년 버전: KTUG: 러브레터

그러나少女가 끝까지 나를 멀리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나에게 준다면 나에겐 이 괴로움을 이겨낼 道理와 自信은 없소. 나는 이젠 마지막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 것이며, 또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그 캄캄한 그 地獄에 가서도 나는 촛불을 켜들고 그대少女가 돌아오는, 진정 그대少女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明民氏.

어제 黃昏이 깃들 무렵 明民氏의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몇 번이고 몇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어요.

明民氏가 새삼스럽게 제게 편지를 띄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封筒을 뜯을念을 하지 않고 한참이나 편지를 이리저리 뒤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써 할 수 없는 중대한 어떤 사연이 필연코 적혀있으리라.)

저의 斷案은 꼭 맞고 말았어요.

明民氏, 눈물겹도록 반갑고 感謝해요.

저같은 사람에게 求婚을 하신다니……. 明民氏와 저는 너무나彼此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은 少年少女時節을 한 이웃에서 成長하지 않았어요?

童心의 세계에서 明民氏와 저는 소꿉장난으로 같이 成長한 竹馬之友였습니다. 점차로 철이 들면서부터 저희들은 男女有別을 깨닫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저희들 自身이 부끄럽고 남의 눈이 두려워 疏遠해지지 않았어요.

허전한 不安을 안고서도 저희들은 자주 만나지를 못했죠.

六·二五라는 커다란 不幸은, 不幸 속에서도 저희들을 길러 주지 않았어요.

서울이 완전수복이 된 몇 달 後 正말로 奇跡적으로 明民氏와邂逅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童心에서의 友情보다 異性間의 友情이 나날이 두터워지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꿈같은 過去였어요.

자주 만날수록 明民氏와 저는 괴로움을 맛보게 됐어요.

저나 明民氏나 어떤 告白을 하고 받아야 될 岐路線上에서 허덕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明民氏와 저 사이엔 告白이 必要치 않았어요.

봄의 季節이 木植物을 蘇生케 하는 自然의 法則과도 같이 저희들 사이는 이미 봄의 過程을 지나 結實의 季節인 가을이었어요. 그 가을의 結實을 彼此 말 못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明民氏가 오늘 제게 보내 주신 편지 句節句節은 제가 明民氏에게 하고픈 告白의 全部였어요.

(저의 애정 고백에 찬동하신다는 표시로 오는 토요일 오후 두시에 덕수궁 정문에서 만납시다)고…….

꼭 나가겠어요. 이제 그날 만나서 서로 여러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좋아요. 이미 제 마음도 明民氏처럼 確固不動해요.

明民氏와 저라면 이 險한 世波를 勇敢하게 헤엄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마음이 샘솟는 탓은 제가 明民氏를 너무 過信하는 탓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世上 許多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자기처럼 남을 믿을 수 있었어요.

믿는다는 것과 믿음을 相對便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자꾸 돼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저는 남을 믿을 수 있고 저를 남이 믿어준다는 벅찬 感激을 어떻게 表現해야 좋을까요?

그날이 지금부터 기다려져요. 무슨 빗갈의 옷을 입고 가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自問自答하고 있어요.

明民氏는 웃으실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모양 운운의 말을 하느냐고요?)

그러나 너무나 幸福하면 사람이란 本來의 自己 理性을 잊을 수가 빈번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들은 世間の 稱讚과 非難에 左右되지 않는 明民氏와 저가 돼야 해요. 約束하시겠죠.

어서 그날이 無事히 다가오기를 祈願하면서 ——

明民氏 안녕히 주무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朴 선생님.

사실을 말씀드리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며칠 동안을 괴로움 가운데 망설이다가 결국은 편지로써 회답을 올립니다. 선생님의 뜻밖의 글월을 받잡고 저는 참으로 당황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의 큰 착오가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서 직접 말씀으로 저의 지금 심정을 알려드릴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장소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근처까지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뵈고 저의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

무리하여도 부자연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朴 선생님.

선생님의 고마우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보면 선생님께는 알맞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하고, 초라하고, 미거한 여자입니다.

선생님은 여러 해 동안 職場에서 뵈어서 잘 알지마는 어느 때나 비범한 것을 좋아하시고 華麗한 것을 좋아하시며 平坦한 것보다는 曲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저에게 잠시 사랑을求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安心하고 선뜻 따라나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結婚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 萬一 結婚을 한다면 저에게는 저와 마찬가지로 平凡하고 素朴한 분이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屈曲이 없이 平坦한 대로 一生동안 攔 없는 지어미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萬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저 기분에 끌려서 따라간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이로서, 저는 또 저로서 반드시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 좁은 소견에 그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는 잠시 기분에 끌리어서 저같은 것을 要求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남자들은 대개가 맹목적으로 애정 문제를 처리하려고 드십니다. 그러나 일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선생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고향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같은 職場에서 일하는 先輩님으로 선생님님을 존경합니다. 그것을 호감이라고 부른다면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異性으로서 호감을 가져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도저히 메꾸려 하여도 메꿀 수 없는 異質的 間隔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초라하게 살아가야 할 범용한 여자인 저에게는 너무도 높아 서 손이 닿지 않는 분입니다.

부디 저를 과썸스러운 여자라고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여러 날 동안 망설이고 괴로워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저같은 보잘것없는 여자로 해서 선생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그것은 결코 저의 본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드린 후에도 저는 선생님과 그 전과 다름없이 사귄 것이며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사실을 발설치 않을 것이오니, 선생님께서도 어김없이 그처럼 해주신다면, 우리는 순수한 우정으로 계속하여 사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번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의 선생님께 대한 이런 판단은 저로서는 결정적인 것이오니 부디 널리 용서하시고, 만일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의 이 진심을 담박한 심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